

이영표·이운재

태극기 새겨진 축구화 신는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사' 새 축구화 '수프리머시' 발표

'초롱이' 이영표(29·토트넘)와 '깡티' 이운재(33·수원)가 태극기를 뒤꿈치에 새긴 새 축구화를 신고 독일로 간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각국 대표팀 선수들이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에서 신을 새 축구화 '토탈 90 수프리머시'를 발표했다.

아드보카트호에서는 이영표와 이운재가 이 축구화를 신는다. 축구화 뒤꿈치에는 국기와 등번호를 넣어 선수 고유의 특성을 살렸다. 토탈 90 수프리머시는 뒤꿈치부터 앞쪽까지 균형을 무게를 분산하는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해 접지력과 볼 컨트롤 정확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나이키는 설명했다.

엄격한 입장권 판매규정

FIFA, 빈자리 속출 우려

국제축구연맹(FIFA)이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까다로운 경기 입장권 판매 규정 때문에 경기장에서 빈 자리가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월드컵 조직위는 입장권이 양표 시장에 나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구입한 입장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

판매하거나 줄 수 없고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FIFA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입장권 구입자가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미 입장권이 매진된 경기에서도 빈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데다 신분증 검사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열려했다.

우르스 린시 FIFA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입장권은 있는데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실랑이를 하느라 긴 줄이 늘어서서 되면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팀 세계 또 놀라게 할것”

■ 아드보카트 감독 축구특강서 자신감 피력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독일월드컵에서 한국이 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6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경주, 울산지역 축구지도자와 아마추어 선수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축구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표팀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가 6~7명이나 있고 일부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역시 연초 전지훈련때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의지와 팀에 대한 헌신, 기강, 투지를 보여줬다”며 “(한국 대표팀은) 전 세계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드보

카트 감독은 “다음 달 11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대표팀을 소집하면 이런 자신감을 극대화하고 팀을 추스려 첫 경기인 토고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호는 국내파와 해외파를 합해 최종 엔트리 23명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월드컵 체제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열흘 남짓 훈련하면서 세네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27일 1차 베이징스포르인 스킵랜드 글래스고로 향할 예정이다.



티에리 앙리(오른쪽) 등 아스날 선수들이 26일 스페인의 비야레알에서 열린 비야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경기(0-0 무승부)로 끝난 후 환호하고 있다.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아스날은 준결승 리그 1승1무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로이터-연방뉴스

김상희 4언더 단독 선두

KLPGA 휘닉스파크클래식 1R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인 휘닉스파크클래식(총상금 2억원) 첫날부터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다.

강일 평장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 26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 단독 선두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친 프로 4년차 김상희(24).

그러나 강력한 우승 후보 박희영(19·이수건설)과 문현희(23·힐라코리아), 아마추어 시절 박희영과 쌍벽을 이뤘던 '무키' 안선주(19·하이마트) 등 다섯명이 3언더파 69타로 1타차 2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추격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1타차로 뿌리친 김상희는 과거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에서 김봉연, 김성환과 함께 '공포의 클린업 트리오'에서 5번 타자를 맡았던 김준환 원광대 야구감독의 딸이다.

아버지의 운동 신경을 물려받은 김상희는 키 168cm의 당당한 체격으로 260야드 안팎의 드라이브샷을 날리는 파워 히터로 작년 로드랜드 매경여자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오른 것이 프로 데뷔 후 최고 성적.

박희영은 바람이 다소 거세진 오후에 티오프를 했으나 작년 이 골프장에서 열린 PAVV인비테이셔널 우승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승 가시권에 들었다.

박희영은 PAVV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날 7타차 역전 우승을 일궈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작년 ADT챔피언십에서 루키 신인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김혜정(LIG-김영주골프)과 '베스트 드레서' 홍진주(23·이동수골프)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개막에 앞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했던 '열장' 최나연(19·SK텔레콤)은 1언더파 71타로 공동 10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아스날 첫 결승 진출

유럽축구 챔피언스리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아스날이 '노란 잠수함' 비야레알(스페인)을 따돌리고 유럽 대륙 정복에 한발 더 다가섰다.

아스날은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비야레알의 엘마드리갈 구장에서 원정 경기로 열린 비야레알과 2005~2006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

전에서 비야레알의 파상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지난 1차전에서 수비수 콜로 투레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던 아스날은 1승1무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이다.

아스날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2경기 치르는 동안 8승4무로 무패행진을 계속했고, 지난해 10월19일 스페인 프라타(체코)와 본선 조별리그 3차전부터는 10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설운도

4월 27, 28일

부킹전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